

# 빵·커피 등 가공식품 최대 반값 대형마트·편의점 등 할인 릴레이

농식품부, 식품·유통 물가 논의  
라면·커피 등 여름 수요 품목  
휴가철 체감물가 완화 총력  
내달 추가 할인 논의 이어져

가공식품 할인행사가 이달 중 전국 대형마트 및 편의점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라면, 빵, 아이스크림, 커피, 탄산음료, 김치 등이 주요 할인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물가안정을 위한 여름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달에 중점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김치, 라면, 아이스크림, 커피, 음료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치솟은 가격을 언급했던 라면의 경우, 농심은 지난 3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할인을 시작했다. 봉지라면과 컵라면 등 품목에 대해 농심은 16~43%, 2+1 할인을, 오투기는 10~20%, 1+1, 2+1, 3+1 등을, 팔도는 10~20%, 2~50%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행사 품목의 경우, 기업들이 자체로 마련한 부분이 있다”며 “라면 등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인할 수 있는지 협의했다”고 밝혔다.

빵은 SPC에서 식빵, 호떡, 샌드위치 등을 10~50% 할인하고 2+1 행사를 실시한다. 김치의 경우, CJ제일제당, 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유통업계와 함께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라면·빵·음료·김치 등 가격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7~8월 중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라면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상, 사계담(김치협회 공동브랜드) 등 주요 제조사가 동참한다. 온라인몰과 홈쇼핑, 오프라인 할인이 예정돼 있다.

아이스크림과 커피·탄산음료 부문에서는 빙그레, 롯데월드,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해태HTB 등 다수 업체가 20~50% 할인 또는 1+1 행사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할인행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뿐 아니라 유통업체 자체적으로도 진행된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GS리테일 등 업체도 이달 중 연계 할인행사를 전개한다.

할인행사가 오히려 수요·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 장관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아 이를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소비자분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7~8월에 가공식품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8월 추가 할인계획은 이달 행사 시행 이후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가공식품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확대(21개 품목)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총 1256억 원)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등의 정책도 추진해 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4.6% 올랐다. 품목 중에서는 초콜릿(20.4%), 김치(14.2%), 커피(12.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식품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IoT 활용 농업용저수지 녹조 차단

농어촌공사 354곳 감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선제적 녹조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짧은 장맛비 이후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물 흐름이 정체된 경우가 많아 녹조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농어촌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녹조 오염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예찰부터 제거에 이르는 선제적 녹조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6월부터 8월까지를 ‘녹조예찰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국 354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90개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수온, 탁도, 오염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녹조 발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녹조가 확인되면 발생 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며, 화학적 제거와 물리적 차단을 병행해 녹조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 단계별로 녹조 제거제를 살포하고, 녹조 제거선과 조류 차단막을 활용해 녹조의 원인인 조류 번식을 차단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수원, 기부·봉사로 지역사회 보답 나서

‘사회공헌 임팩트 워크’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사회공헌 임팩트 워크’를 시행한다.

사회공헌 임팩트 워크는 체코 원전 수주에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답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7일 경북 경주시 본사에서 ‘KHNP 아너스클럽’ 제1호와 2호 직원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본사 로비에서 기부 행사인

‘한수원의 아름다운 데이’에 참여해 헌옷과 헌 물품을 기부했다. 본사 임직원들은 각종 물품을 기부하며 자원순환을 실천했고, 최다 물품 기부 직원에게는 간식 선물권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기부된 물품들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되며 수익금은 전국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

황 사장은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 덕분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게 됐다”며 “한수원은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기념해 사회공헌 임팩트 워크를 시행한다.

## 고용보험 미적용 산모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부, 2차 추경 128억 증액 편성  
프리랜서·1인 사업자 지원 사각 해소  
출산 소득단절 생계보전 신속 추진

정부가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지급하는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원 더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

다. 이로써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총 346억원이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다.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만1784명에게 출

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월 말 이미 예산의 88.4%인 1만420명에 대한 지원이 완료됐다. 8월 이내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더 지원, 올해 총 2만여명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한 신속 지원이 가능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경포호 미생물서 올리고당 생산 효소 발견

환경부, ‘베타 아가레이즈’ 확보

신종 미생물에서 추출한 효소로 기능성 올리고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신종 미생물로부터 ‘한천(우뭇가사리과)’을 분해하는 효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기능성 올리고당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6월 연구진은 강릉 경포호에서 한천 분해 능력이 뛰어난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 경포호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독특한 생태 환경을 갖춘 곳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신종 미생물은 한천 등 해조류의 주요 성분인

아가로오스를 분해하는 ‘베타-아가레이즈’ 효소를 보유하고 있다.

실험 결과, 베타 아가레이즈는 한천의 아가로오스를 분해해 기능성 올리고당인 네오아가로비오스와 네오아로테트라오스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질은 장내 유익균 증식, 면역 기능 강화 등 건강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향후 식품과 화장품, 의약 소재로의 활용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영 FTA 개선 5차 협상, 서울서 개막

산업부, 16개 분과별 세부 협의

우리나라가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투자·서비스 등 16개 분과 협상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영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서울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개선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 세부 협상이 예정돼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앞서 양국은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4차례의 협상이 열렸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참여하며 영국은 아담 팬 기업통상부 부장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양국 대표단 규모는 약 60명이다.

권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FTA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